

대유위니아, 동부대우전자 유상증자 제안

본입찰 마감...글로벌세아·이란 엔텍합·中 미디어와 4파전 FI, 광주공장 유지 운영사 긍정평가 방침...이번주내 선정

동부대우전자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지난 28일 마감된 가운데 대유위니아가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 정상화로 주주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전자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 매각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매각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유위니아와 글로벌세아, 이란 엔텍합, 중국 미디어 등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 2곳과 해외 업체 2곳이 본입찰에 뛰어든 것이다. 이란 엔텍합은 한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웨일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합군으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대우전자를 매물로 내놓은 이 회사의 재무적투자자(FI)들은 동부대우전자 지분 100% 매각을 희망하는 가운데 대유위니아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구주를 사들이는 대신 신주 발행에 참여해 동부대우전자에 시급한 운영자금을 투입하고, 경영 참여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킨다는 방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구주는 감자 등으로 지분율이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유위니아는 동부대우전자의 경영이 정상화하면 추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기존 주주들도 기업 가치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자업계는 “동부대우의 매출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유동성 악화가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유위니아의 제안은 긴급한 운영자금 투입으로 먼저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외국계 기업으로 가장 의지가 강한 기업은 중국 미디어이다. 중국 가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디어는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869억4900만위안(약 30조7400억원), 순이익 149억9800만위안(약 2조4661억원)을 기록했다. 미디어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에어컨을 공급하는 등 과거 동부대우전자와 협업한 바 있다.

한편 동부대우전자의 주인교체가 기정사실화하면 추후 광주공장 임·직원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주인교체가 처음이 아닌데다, 해외 기업이 인수할 경우 광주공장을 계속 운영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 매각을 진행하는 FI가 광주공장 운영에 우호적인 인수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방침인 것이라면 기대를 놓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FI는 노조와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질 경우 투자자금 회수가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광주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현재 동부대우전자 경영진과 노동조합 등도 사드 여파로 FI 교체가 무산된 뒤 매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각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사와 추가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2.90 (-1.29)	↓ 금리 (국고채 3년) 2.11% (-0.01)
↑ 코스닥 781.72 (+8.60)	↓ 환율 (USD) 1076.80원 (-7.60)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이유식 ‘짱죽’ 나주 친환경 농산물로 제조...킵밥·죽 등 간편 건강식 호평

친환경 이유식을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판매하고 있는 나주의 한 중소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짱죽(대표 서동교)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유아식 제조 전문기업으로 한국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나주스마트 크린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로 활동하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제품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 수급이 용이하고 최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4년 서울에서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한 짱죽은 HACCP 공정라인과 최신설비를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유식, 유아농과자, 수제헬빙죽, 쌀눈죽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96억원, 올해는 이보다 높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짱죽은 HACCP 기준에 맞춘 공정라인과 개발, 미생물 실험실 등 최신설비를 완비했다. 이유식, 간편한 킵밥, 유아농과자, 수제 헬빙죽, 간편한 쌀눈죽, 순수쌀눈, 한우순 사골곰탕, 간편하게 비벼먹는 곤드레, 한우 도가니탕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짱죽의 주력 제품은 이유식, 간편한 킵밥, 실은 이유식이다. 이 제품은 100% 국내산 유기농쌀 사용과 칼슘 및 철분이 첨가돼 한 팩으로 아기가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다. 특히 간을 하지 않아 노인식과 환자식에도 추천하는 제품이다.

올해 출시한 ‘간편한 쌀눈죽’은 웰빙 제품으로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후면 섭취 가능해 여행용으로 간편 영양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하도급 불공정 행위 감소 현금 지급 증가 등 거래 개선

대금 미지급·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1589개사가 적발됐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결과 계약 단계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현금 지급 비율이 증가하는 등 거래조건이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해 매년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5~9월 약 50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천여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거래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사였다. 전년(2700여개사)보다 40%가 넘는 1000개사 이상 감소한 수치다.

불공정 관행은 계약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감소했다. 부당특약 설정을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였다. 전년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나타났다. 전년 54.1%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대금미지급 행위도 다소 개선됐다.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의상매출채권 등 대부분 항목에서 미지급이 전년보다 0.3~3%포인트(p) 줄었다. /연합뉴스



1인 창조기업-시니어 기업 임직원 소통 간담회 29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열린 '1인 창조기업과 시니어 기업의 임·직원과 지원 기관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진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광산업 유망기술 로드쇼·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광산업진흥회 내달 5~6일 DJ센터...24개국 150명 초청

광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 로드쇼와 수출상담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광주 광산업 유망기술 로드쇼·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는 광주지역에 소재한 LED, 광통신, 레이저, 광학 관련업체들이 전통적인 광산업 제품과 최근 이슈화되는 IoT, ICT, ESS저장장치, 의료기기 등 타 산업과 융합된 제품을 전시하며 그

중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사업에 의해 구축된 광통신, 광의료, OLED 분야 협동조합과 한국광기술원, ETRI 등 광산업 육성 지원기관에서 기업에게 기술 이전된 제품들이 출품된다.

특히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이번 광산업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주요 국가에 12개 마케팅 센터를 구축하고 실질구매력을 갖춘 24개국 150여명의 바이어를 국내기업과 상담 매칭을 주선, 상담이 구매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토 로드쇼 행사 기간 동안 ‘해외 마케팅 센터 프로젝트 설명회’, ‘LED 조명 활성화 방안 설명회’,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광기술원과 병행한 ‘2017년 한국광기술원 기술이전 설명회’가 개최돼 지역 광산업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부회장은 “24개국 150여명의 바이어가 국내 기업과 상담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의 장이 열린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광산업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 나주 빛가람로에 임대아파트

1558세대 후분양...초·중·고 교육망·교통 연계성 탁월

부영주택은 나주시 빛가람로 800에지는 광주전남혁신도시 B6블록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임대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전용면적 84㎡, 20개동, 1558세대 규모다.〈투시도〉 임대료는 84㎡4개 타입 모두 임대보증금 7900만원에 월 임대료 32만원으로 같다.

특별공급 청약일정은 12월 4~6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6일에는 일반 특별공급을 비롯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청이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접수는 각각 12월 7~8일,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다. 당첨자 계약은 26~28일 광주전남혁신도시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월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15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할 마친 상태고 마지막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작공을 앞두고 있다. 또 근처에 고속철도(KTX) 나주역이 있어 전국 어디든 이동하기 편리하고 호남고속도로,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도 가깝다.

교육여건도 장점이다. 5분 거리에 초·중·고교가 위치하며 인근에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 특목고도 있다. 이밖에 혁신도시 내 5개 초교, 3개 중교, 2개 고교가 신설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경리
Step 2. 단열바이스카팅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아트패션시트에서 임대료 지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함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